



주임신부	탁현상 보나벤투라 2696-8111	 천주교 신월동 성당 (성 요셉 성당) (우) 079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길 20 (신월동)	주일미사	토 15:00(어린이), 18:00(일반)
보좌 신부	지형규 요한 2697-8111		일 10:00(청소년)	
수녀원	신 발바라 2690-7111		07:00(일반), 09:00(일반), 11:00(교중)	
	정 마리 로사			
사무실	2696-6111, 2690-2114		평일미사	06:00 - 수, 목, 금 10:00 -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19:30 -
F A X	2607-5681		고해성사	매 미사 전
연령회	010-5897-7031		유아세례	매월 첫째주 토요일 16:00
홈페이지	www.sinwol.or.kr		혼인면담	매월 마지막 토요일 16:00

축! 성탄

성탄의 기쁨과 은총이
모든 이에게
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

축! 영명축일

지형규 요한(12/27) 보좌신부님의
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.

축하미사 : 12월 25일 11시 교중미사
 영적예물 : ①주모경 2회 ②사제를위한 기도 2회
 ③미사영성체 2회 ④묵주기도 5단

◆ **미사 시간 변경 <1/8일(주님공헌대축일)부터>**
 화요일 저녁(7시30분), 주일 저녁 6시(청년)미사가 새로이 시작됩니다.

평일미사	월~토 / 오전 10시 화 / 오후 7시 30분
주일미사	토 오후 3시 (어린이), 오후 6시(주일특전)
	일 오전 7시, 9시, 11시(교중) 오전 10시(청소년), 오후 6시(청년)

◆ **주일 저녁 청년미사 공동체(가칭) 모집**
 1월 8일부터 주일 저녁 6시 미사가 재개되어 미사에 함께 하실 청년 봉사자들을 찾습니다.
 분야: 전례(독서, 해설), 성가(노래, 반주), 복사, 제대봉사등
 문의: 보좌신부(02-2697-8111)
 카카오톡: bit.ly/3VC0bSG

◆ **성요셉 성가대 남성 단원모집**
 대 상 : 본당 전신자 (남성)
 연습시간 : 매주 목요일 저녁 8시/ 1층 요한방
 담당전례 : 교중미사, 대축일미사, 혼배미사등
 문 의 : 단장 010-5689-5782

◆ **2022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부율 (12/20일 현재)**

전체세대수	책정세대	책정율	납부율
2,163대	824세대	38.1%	37.1%

◆ **기부금 영수증 발급**
 2017년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본당 사무실에서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**교무금 정리**
 금년도 교무금을 납부 정리해 주시어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 ※ 13월 교무금(성소후원금) 납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◆ **평일미사 반주 봉사자님을 모집합니다.**
 문의 : 반주단장 010-4903-9773

◆ **성령기도회 <매주 목 19:30 / 지하소성전>**

12/29	이명숙 엘레나	1/5	이석 안드레아
1/12	이선희 마리아	1/19	신계숙 카타리나
1/26	복음 묵상	**	***

◆ **장학기금 및 성소후원금 현황 (12/20일 현재)**
 장학기금 총액 : 86,906,227
 익명(1백만원), 모금함(471,760)
 성소후원금 총액 : 23,367,764 / 익명(1백만원)

◆ **지난주 정성 (12/12~ 12/18) * 감사합니다. ***

교 무 금	8,155,000	건축헌금	3,395,000
주일헌금	3,805,000	사무실봉헌함	5,000
감사헌금	이영자(5만원), 손지영(10만원), 송정자(5만원) 이점순(5만원), 최영옥(5만원), 이재범(5만원)		
성탄꾸미기	총합계 (₩1,580,000) 김명자(10만원), 유승남(5만원), 익명(10만원) 김경예(5만원), 손봉녀(5만원)		
미사참례인원	894명		
교무금 은행 납입 계좌 : 우리은행 1006-400-144224 (재)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※은행 입금하실 경우 필히 교무금 통장 명의로 납입하여 주십시오.			

성탄 밤 미사 화답송	 오늘 우리 구원 자 주 그리스도 태 어 나 셧 다
성탄 낮 미사 화답송	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 마 다 모 두 보 았 네